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욱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연 이미지로 나타낸 도시풍경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채 원

자연 이미지로 나타낸 도시풍경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장 욱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이 채 원

인 준 서

이채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도시는 현대인의 가장 익숙한 풍경이다. 도시 안의 일상적인 생활반경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끼는 지점을 따라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집적되어 살아가는 도시 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 중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거형태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난 인간 내면의 본성을 찾고자 했다. 동서양의 경계가 없는 시대에 삶을 지속하고 있는 본인과 같은 현대인들에게 오늘 날 환경에서 좁아진 자연의 의미를 반문하며 되짚는다. 도시생활에서의 일상, 반복적인 삶의 속성에서 보이는 지점을 설명한다. 인간은 개인과 개성을 넘어 표준화된 공동체의 삶에 순응하는 스스로를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임으로 말한다. 자연물과 인간의 사회적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난 인공 건축물을 예술에서 본 시선에 대해 분석한다. 자연에 대한 미술사에서 이어지는 지속적인 관심에 일조하고, 풍경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여 예술가 스스로의 환경에서 국한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주관적 시각에 대해 생각한다. 현대인의 시선에서 자연과 인간의 경계를 풀어봄에 도시자연을 범위로 한정하여 예술을 통해 시선을 넓히고, 발전을 거듭하는 현대인의 자세를 가진다. 이를 통해 보다 넉넉해진 삶의 자연스러운 태도를 제시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2020년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첫째, 도시화의 과정과 더불어 근대사회를 지나며 나타난 주거형태인 아파트가 현대인으로서 일상적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자연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예술로서의 풍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생활환경 속 주거형태를 기반으로 인공물과 자연에서 보이는 대나무, 선인장을 별집이미지의 구조적 결합과 함께 조형화시킨 작품 표현방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작품 5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작방법과 작품설명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형성배경	3
1) 자연스러운 도시풍경	3
2) 예술로서의 풍경	7
2. 작품표현방법	10
1) 수직적 구조와 아파트	10
2) 반복적 구조와 아파트	12
3. 작품분석	15
III. 결론	30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Beepartment 1	
PLA, 가변크기, 2020	15
【작품 2】 죽림(竹林) 1	
시폰 천에 인쇄, 가변크기, 각 150x70cm(5개), 2020	18
【작품 3】 죽림(竹林) 2	
적송, PLA, 인조잔디, 락카 도색, 25x60x18cm, 2020	21
【작품 4】 Beepartment 2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도색, 각 28x8x8cm(6개), 각 18x15x15cm(5개), 2020	24
【작품 5】 죽림(竹林) 3	
스테인레스 스틸, UV인쇄, 각 40x60cm(2개), 2020	27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시는 중심이며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들과 관계들이 복잡하게 엮여진 공간이 되었다. 도시는 근대사회를 시작으로 급변했고 지속적인 변화가 스스로를 나타낸다. 산과 바다 등의 자연 중심적 생활에서 인간 중심적 사회로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인간은 발전과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건축 구조물 형태인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거형태로서 등장했고, 주거단지라는 개념도 생긴다. 문명의 발전은 예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표현의 대상이 자연환경에서 도시환경으로 확장되었다. 인간 삶의 본래 터전은 자연이고 인간 또한 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은 자연의 영향을 받고 인간의 미의식 내지 예술 활동도 자연의 원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¹⁾ 도시현대인으로서 자연이란 무엇으로 볼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자연의 범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근대 이후로 자연을 현실에 대상으로서 도시위주의 인간중심적 자연경관이 이루어진 환경에서의 표현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현대인에게 익숙해진 도시환경을 통해 예술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인공물과 더불어 표현된다.

본인은 도시계획²⁾을 통해 나타난 지역 중 하나이자 주거에 목적을 둔 ‘주거계획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성장했다. 일상에서 지나는 길 위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던 도시의 수직적 모습은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인식하였다. 근대 이전 세대는 자연 중심적 생활을 통해 산과 들, 바다 등을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대상을 보며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각자에게

1)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p.8

2) 도시 생활에 필요한 교통·주택·위생·보안·행정 따위에 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 표준국어대사전

주어진 환경, 문화 등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스스로의 관점에서 인간이 익숙한 시선으로 자연을 보기도 하고, 인공물과 자연물 사이의 서로 다른 형태에서 자연의 모습을 탐색하여 도시풍경의 표현 연구를 목적으로 가진다. 현대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 보는 높은 건축과 인공적인 풍경을 전제로 표준화되어 반복되는 현대인의 속성을 가진 도시 모습을 인식한다. 과거 예술가들이 그리던 풍경에 대한 동양의 관조적 시선을 유지하며, 오늘날 경험의 주관적 공간을 구성해 본인의 작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 형성 배경

1) 자연스러운 도시풍경

도시화란 현대의 공간에 속한다. 동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과 발전에 따른 주변의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도시화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업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화 사회의 도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통해 도시화가 시작되었다. 서구사회에서의 시작으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근대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0년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급속한 산업화가 전개되었다. 노동인구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생활권과 주거환경이 형성되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거치며 집중적 인구 상승이 나타난 도시는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대지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근대 건축물에서는 대지의 효율성을 이유로 수직적이며 인공적인 건물들의 반복적 나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도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한다. 근대 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도시는 현재의 생활환경이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발달은 엄청난 인구를 도시로 몰려들게 해 거대도시의 등장을 가속화시켰다.³⁾ 위의 내용과 같이 도시화를 넘어 거대도시 등장은 함께 정치, 경제, 산업입지 등의 이유로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기

3)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p.5

도 하고, 대도시 가까이 뉴타운⁴⁾을 건설하는 등의 계획적 신도시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주거형태도 변화가 생겼다. 도시생활환경에서의 밀집되어있고, 점점 늘어나는 인구밀도를 포용할 합리적인 주거형태를 고안하기 시작했다.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르 코르뷔지에⁵⁾는 최초로 도시의 계획된 주거형태로서 ‘집합주택’ 개념을 도입했다. 그는 주택의 수직, 수평적 집합을 실험했다. 근대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높게, 도시의 자연인 조경을 마친 개방 공간에서 ‘유니테 다비타시옹 프로젝트’⁶⁾를 통해 수직전원도시를 구현했다. 근대 건축의 기술이 도입된 주거형태는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집합 주거 형태로 실험되고 진화되어 자연스럽게 도시에 건축되었다. 도시에서 대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건축 구조물 형태인 ‘아파트’가 서울에서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주거형태로서 등장한다. 거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위한 계획 신도시건설을 통해 집합형태로 표준화된 주거구역이 모여 일정한 집단을 이루는 단지⁷⁾의 개념도 함께 생성된다. 주거단지의 목적은 집합적 거주공간이라는 상황에서 함께할 때 사회학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을 수 있는 정확한 집합단위를 산출하여 규격을 정의하여 따른다. 르 코르뷔지에는 그렇게 해서 약 1000~2000명의 주민 즉, 300~400가족이라는 규모를 도출했다. 이를 ‘표준주거단위’라고 칭한다. 주동의 크기가 그냥 설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주공동체를 형성하기에 맞는 스케일이라는 것과

4) 기존 대도시의 인구과밀화와 지역적 개발편중과 도시환경의 악화, 산업집중 등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새롭고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5)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0.6.~1965.8.27.)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국제적 합리주의 건축사상의 대표주자로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 건축국제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거대 주거단지 마르세유의 《유니테》를 설계했다, 두산백과

6) 유니테 다비타시옹(주택 집합)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1887~1965)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계하여 건축한 마르세유에 있는 건축물. 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 건물은 1920년대 건축의 평평한 건물 표면의 미적 특성을 거친 시적 표면 특성을 지닌 ‘베통 브뤼(béton brut, 노출 콘크리트)’로 대치함으로써 새로운 건축 개념을 제시한 건물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7) 주택, 공장, 작물 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 표준국어대사전

도시나 마을 같은 사회학적으로 고유의 속성을 갖는 하나의 단위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였다.⁸⁾

본인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진 주거계획도시에서 태어났다. 본 고향은 각각에 일정한 명칭으로 불리는 아파트가 일정한 수로 단지를 이루고, 아파트 단지들이 집적되어 이루어진 도시다. 이를 근대사회에서 나타난 ‘주거계획도시’라 한다. 일정하게 표준화(standardization)된 공간을 한 집이라 명칭하고, 수직적이며 한 집 한 집 탑처럼 쌓아올린 수직적인 구조물의 집합에서 유년시절과 성인이 된 지금까지 생활한다. 본인의 성장 환경은 획일화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건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단지이다. 근대 사회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생긴 하나의 주거건축물 속 한 공간은 집이라 칭해지고 다수가 반복적으로 집적되어있다. 획일화된 외관이 보여도 각자의 집은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리되어 느낀다. 여기서 본인은 자신과 같은 다른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공존하고 있었음을 지각한다. 이제 아파트 내부의 본인만의 공간이 독립된 공간임을 넘어서 공동체로서의 도시의 삶에 한 부분임이 아닐까 의문이 발생한다. 본인은 이 의문의 결론탐색을 위하여 시발점인 아파트의 외관을 보며 그 속의 타인들의 삶까지 생각을 확장한다. 외양을 본다는 것에 대해 존 버거(John Berger, 1926~1962)는 그의 책 『The Sense of Sight』에서 ‘모든 외양은 끊임없이 서로 변해가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다. 본다는 것은 시각의 의미를 그 상호 의존성의 경험 안에 위치시키는 것이다.’⁹⁾라 하였다. 대상을 보며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문화 등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속적으로 생활한 주거형태에 대한 환경을 시작으로 타인의 삶과 본인과의 존재의 연결

8) 이길임, 「르 코르뷔지에의 집합주택실험에 나타난 도시·건축적 함의(含意) : 임피블르-빌라로부터 유니테 다비타시옹까지」, 경성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공학박사학위 논문, 2018, p.86 재인용

9) John Berger, 『시각의 의미』, 이용은 역, 동문선, 2005, p.287

점에 대한 탐구로서 아파트는 조형적 표현의 소재가 된다.

본인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현대의 인간 공동체의 일부분임을 지각했다. 공동체 속 개인은 자립하여 존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생을 이어가고자하나 이를 위해서는 결국 공동체 생활이 필요로 한다. 때로는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나 자연스럽게 개개인만의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함이 모여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된다. 결국 외부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타난 필연적 이유로 드러난다. 의문의 근거로 현대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연결지어 찾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하며, 결국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가 필요로 하게 되어 공동체 삶을 이루는 것이라 본다. 부모형제와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스럽게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자신과의 교집합이 있는 타인이 존재하고 관계망이 생김을 인지하는 순간이다. 드러난 공동체의 삶이 보이는 도시는 다양한 상황들과 공간들로 형성되었다. 여기서 공간이란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장소 또는 인간의 활동이 행해지는 장이나 물체의 운동이 전개되는 넓이를 말한다. 위와 같은 인간은 끊임없이 존재함을 인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도시공간의 집합적인 형태의 건물을 볼 수 있다. 도시는 이제 인간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큰 단위의 공간으로 체감된다.

인간과 타인에 대한 존재 지각을 위해 생활 구성요소를 찾고 이를 제시한다. 삶에서는 의식주(衣食住)를 행하는 것이 주된 요소이다. 현대인의 주된 주(住)요소 중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체 삶의 양식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즉 본인과 타인의 삶을 표상한다.¹⁰⁾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예술에서의 ‘표상한다’는 것은 예술작품에 나타난 표상은 그대로의 것이 아니고 예술가가 경험한 세계에 대한 것이며, 그런

10)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 표준국어대사전

점에서 지금까지 세계 속에 존재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라 말한다.¹¹⁾ 위 문단과 p.5에서의 존 버거(John Berger, 1926~1962)가 말한 구절을 함께 이를 근거로 본인의 환경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삶의 공간을 표상하여 제시한다. 개별적이지 독자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해 삭막함으로 치부되어 단편적으로 말하는 현대인의 삶의 공간이 먼 과거와 다르지 않듯 공동체의 구성되어있음을 알린다. 크로포트킨(Kropotkin, Petr A, 1842~1921)은 그의 책 『Mutual aid : a factor of evolution』에서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 한다. 이는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요인이 모두 상호부조(相互扶助)¹²⁾로 이루어짐을 주장한다.¹³⁾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서로간의 관계를 중시할 수 있음을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2) 예술작품에서의 풍경

풍경이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예술에서의 풍경은 대상에 대한 시각적 느낌, 사유방식이 연결되어 여기에 적합한 매체를 이용해 표현되는 것이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풍경을 예술로서 나타낸 시선에 차이가 있다. 서양의 작품에서 보듯이 농장, 초원, 운하, 풍차, 전원주택 등의 인공적인 자연과 대조적으로, 동양의 화가들은 산, 골짜기, 폭포, 강 그리고 호수 등 천연의 자연을 소재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¹⁴⁾ “서양과 동양의 자연관은 ‘자연의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른 것에서도 구별된다. 서양 풍경화의 개념은 인간이 자연을 개척한 결과인 ‘풍경’에서 비롯된 것인데 비해, 동양의 ‘산수화’는 산수라는 말 그대로 산과 물

11) 존 듀이, 『경험으로서 예술1』, 박철홍 역, 나남, 2016, p184

12) 복수(複數)의 개인 또는 집단이 공통적인 목적과 공동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사회행동을 의식적·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관계, 두산백과

13) 크로포트킨, 『만물은 서로 돕는다 : 크로포트킨이 밝힌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요인』, 김훈 역, 여림언덕, 2015, 머리말

14) 서성록, 『동서양 미술의 지평』, 재원 1999, p.49

의 세계와의 합일과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풍경개념은 서양에서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위적 힘이 미치지 않은 야생의 상태를 자연이라고 말한다면, 풍경은 인간이 가꾸어낸 ‘문화적 자연’인 것이다. 그러나 일상 언어에서 자연과 풍경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될 때가 많다. 유럽의 풍경화에서도 자연과 풍경은 때로 큰 구별 없이 풍경화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개념이 구분되며, 자연보다는 풍경이 서양 풍경화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¹⁵⁾ 위와 같이 서양의 풍경화는 개간된 농토나 자연을 표현하거나 인간의 삶을 즐겁게 하는 자연의 모습을 그려, 인간 중심적 입장에서 본 자연을 표현하였다. 자연은 현실에 대상이 되어 인간이 파악하고 주체가 된 산업화된 사회와 도시위주의 생활이 인간중심의 자연경관을 그렸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동양에서는 합일의 개념으로서 자연대상을 인간의 시선으로 묘사와 재현함의 목적이 아닌 작가의 주관적 관념에 의해 관조적(觀照的)¹⁶⁾ 시선으로 창작된 이상적인 공간을 구축함에 목적이 있다. 동양 미학에서의 의경(意境)¹⁷⁾은 경험적 공간과 실제 풍경의 상관적 구축에 대해 말한다. 위와 같이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비롯한 풍경은 동서양 미술사에서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지각한다. 훈데르트바서¹⁸⁾의 예술관은 자연과 예술이 하나라는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술은 자연의 최소한이다. 예술은 자연을 닮아야 한다. 자연이란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자생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유일무이하다라 말한다.¹⁹⁾ 근대에서 나타난 그의 건축 공간의 재구성은 자연과 생명들 속에서의 인간의 쉼터로서의 공간의 재

15)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5, p.56

16)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또는 그런 것, 표준국어대사전

17) 작가가 스스로 체득하고 인식한 내적 형상과 객관적 상관물이 만나 새롭게 형성되는 의미. 원래 불교에서 쓰이던 말로, 당대부터 본격적인 문학 비평 용어로 사용되었다, 우리말샘

18)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 1928~2000) 오스트리아의 화가이며 건축가. 강렬한 색채와 유기적인 형태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 나갔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장하며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두산백과

19) 바바라 슈티프, 『훈데르트 바서』, 김경연 옮김, 현암사 2008, p.20

창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⁰⁾ 위를 예로 지속적으로 미술사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본다. 이는 근대를 이후로 자연을 현실에 대상으로 보고 도시위주의 인간중심적 자연경관이 이루어진 환경에서의 표현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 날 풍경으로 서구 문물로 도시화된 시기를 지나 현대인으로 태어난 본인은 자연 안에서 ‘주거계획도시’의 삶을 말한다. 이는 인간중심사회 속에서 대단지로 이루어진 주거환경이 익숙해진 현재를 의미한다. ‘도시생활’의 환경에 영향을 받은 현대인으로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은 경계에 있어 혼란함을 느낀다. 대부분이 인간으로서 또는 인간을 위해 표준화되어있는 삶과 함께 민족에 뿌리인 동양인의 예술로 환경을 담아내는 근간(根幹)을 중심하여 공간을 바라보고자한다. 도시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본인의 환경 속에서 관조적인 시선을 통하여 주관적 자연을 생각한다. 메를로 - 폰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풍경이 내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로 설명한다. 공간에서 사유하는 자아가 있음을 확인하고 주관적 풍경을 구축하고자함에 있어 예술가의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인의 자연풍경에 대한 범위를 넓혀보고자 한다.

20) 기옥란, 「현대회화에서의 도시공간의 미적 이미지 : 도시와 자연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p.83

2. 작품표현방법

조형예술표현은 자연환경, 생활방식에 따른 사고, 개념 등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한 나라의 주어진 환경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환경적 요소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은 사람마다 경험에 따른 기억으로 누적되어 본인의 방식으로 남는다. 그 기억은 이미지를 동반하고, 이미지는 미적경험으로서 조형적 개념으로 형태로 나타나 표현된다. 동양 미학인 의경(意境)을 기준으로 본인의 경험적 형상과 상관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아파트 숲’을 ‘자연의 숲’으로 풍경을 치환한다. 본인의 자연스러운 일상 환경의 경험적 시각을 담아 형태를 새롭게 표현한다.

1) 수직적 구조와 아파트

최정화(1961-)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흔하고 저렴한 소재, 소쿠리 등의 소모품을 활용하여 수직인 탑을 쌓는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2018년의 <숲>, <꽃, 숲>은 위와 같은 오브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수직으로 쌓고, 꽃과 숲을 비유하며 새로운 시각적 물질성을 가지도록 한다. 오브제를 수직적으로 쌓은 모습이 일상에서 나뭇의 용도나 기능으로 불러오며 쓰이던 물체가 새로운 시각적인 이미지로 해석되게 한다. 그의 2013년 작품인 <카발라 Kabbala>는 수천 개의 플라스틱 소쿠리를 ‘쌓기’라는 수직적 행위를 통하여 18m 높이의 거대한 기념비로 재탄생된 작품이다. 그의 작품을 넓게 보면 수직적 구조물인 탑들이 반복적으로 모여 자연의 이미지인 숲으로 보이도록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은 일상 환경인 ‘주거계획도시’의 일상적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표

현한다. 주로 다니던 길 위에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던 수직의 모습이다. 인간은 익숙한 시선으로 자연을 보기도 하고 다른 형태에서 자연의 모습을 탐색한다. 이 부분에서 인간의 자연과 공존함고 있음을 느낀다. 아파트의 형태와 자연의 형태 중 나무는 수많은 생명체의 안식처이자 유기체로 나타난 수직적 구조임을 깨닫고 자연물로서 근원적으로 합일하게 놓고 본다. 두 개의 형태는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결합되어 일상적 자연의 이미지를 이룬다. 【작품 1】 ‘Beepartment1’ 의 작품에서는 관람자들이 작품을 올려다보며 긴장감이 느껴지는 수직적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본인이 사회에서의 일상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에서 올려다본 나의 주거 구조물에 대한 거대함과 하늘로 솟아있는 층과 층의 아파트에 대한 경험을 담았다. 위와 같은 안식의 개인 공간인 건물을 되돌아가는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일상적 순간의 감각도 느낀다. 수직적 구조는 마디마디가 나뉘어졌다. 이는 자연공동체 속에서 개인 또는 가정이 한 층씩 쌓여있는 모습으로, 마디가 반복되어 이루어진 형태에 자연의 유기체들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자연물 중 대나무의 형태에 겹쳐 빗댄다. 수직을 이룬 설치된 작품이 도시의 건물이자 대나무로 보이는 이중의 시각적 감각을 경험한다. 아파트이자 대나무의 형태인 수직적 구조가 주는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 색을 제거하여 구조화 시켜 설치한다. 【작품 2】 ‘죽림(竹林)1’ 은, 수직적 구조물인 아파트를 대나무에 빗댄 【작품 1】에서 본 형태가 반복된다. 이는 수직적임이 극대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산에서 내려다 본 마을의 풍경에서 시작된 경험이다. 어린 시절 처음 바라본 풍경에서는 아파트가 겹겹이 펼쳐져 주거도시가 주는 뻘쭙함에 일률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긴장감이었지만 어느새 그 속에서 성장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적 풍경으로 자리를 잡은 편해진 감정에 대한 연상을 담았다. 과거의 동서양 예술가들이 익숙하고 편안함으로 바라본 관조적 시선에서의 산과 들, 나무 같은 산수풍경과 같이 본

인의 일상의 반복이 준 편안하고 자연적인 상황에 대한 시각적 경험이다. 아파트와 대나무가 동시에 보이는 형태는 반복되어 숲이 되고, 산을 이루어 풍경이 된 모습을 담으려 하였다. 관람자는 본인이 그린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며 편안함과 동시에 수직적으로 빼곡하게 나타나는 도시이자 자연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작품 3】 ‘죽림(竹林)2’ 는 【작품 1】에서 보인 하나의 거대한 수직의 구조물을 축소하고, 수직선의 반복 배치를 통해 구조물이 입체화되어 모인다. 이러한 축소되어 보이는 오밀조밀하게 밀집된 수직적 형상은 작은 이미지의 한 부분 쌓여서 전체를 이루듯이 대나무의 반복을 통해 숲의 일부분으로 지각되는 이미지를 보인다. 작은 존재인 자신이 빼곡한 건물이 모인 도시의 일부분에서 일상을 보내오고 있는 감정으로 연결된다. 도시생활로 본 시각적 경험에 의한 풍경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5】 ‘죽림(竹林)3’에서는 여백을 중심으로 작품의 대나무 이미지가 작품의 밖까지 연결된다. 평소 일상인 아파트단지의 중심에서 무심코 세워진 건물들을 바라보던 관조적 시선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감정을 담고 있다. 작품에서의 이미지보다 시각적 경험에서의 감정에 초점을 두었다. 여백에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중심으로 작품을 경험 할 때 양쪽 위로 뻗어가는 대나무의 연결선은 숲의 한가운데에서 바라본 수직적 풍경을 연상한다. 본인은 과거의 풍경화를 그리던 예술가의 관조적 시선으로 수직적 구조물이 등장하는 동시대의 풍경의 공간을 나타낸다. 주거도시에서 사는 현대인으로서 일상적 풍경을 포착하고 일상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본다.

2) 반복적 구조와 아파트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1963~)은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반복적으로 배치

하여 전체를 그린다. 그의 작품은 점점 가까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달력이 매우 강렬하다.²¹⁾ 크리스 조던 작품에서는 작품의 세부적인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도시인들이 무질서한 삶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그것들이 작가가 그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표현방법과 독립적인 각각의 조형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²²⁾

본인은 위와 같이 반복의 재료가 되는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반복이 모여 새로운 전체가 되어 의미적 조화를 이룬다. 하나의 이미지로 별집의 형태를 가져온다. 별의 반복적이고 집과 동식물을 오가는 형태에서 사회와 주거지를 오가는 인간의 모습을 느낀다. 별의 집인 육각형의 형태 즉, 별집무늬와 현대인의 아파트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배치하고 시각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반복적 구조가 현대도시인의 일상적 풍경의 속성이 된다. ‘주거계획도시’ 속 자신이 사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별들이 자연을 찾아다니고 별집으로 되돌아오며 느끼는 것과 같은 안정감일 것이다 추측한다. 편안하고 일상적인 풍경의 공간임을 강조하여 구성한다. 【작품 1】 ‘Beepartment1’에서는 반복적으로 쌓임이 나타난 육각형의 아파트 형태가 보인다. 여기서 보이는 육각형은 별집을 표현한다. 현대인인 본인 스스로를 분주한 삶을 지속하며 등하교, 출퇴근을 하는 사회인의 일상적인 비유 동물로 꿀벌을 칭한다. 별집의 칸칸이 반복하는 형태는 아파트의 창이 반복되어 쌓이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아파트이자 별집인 속성을 가진 의미가 하나의 구조물로 강조된다. 【작품 2】 ‘죽림(竹林)1’, 【작품 3】 ‘죽림(竹林)2’에서는 위 【작품 1】에서의 대나무 형태가 반복적으로 보인다. 별집과 아파트의 공동체적인 물질적 속성이 모여 하나의 공간으로 보인다.

21) 이학선, 「도시인의 일상에 관한 조형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전공 직물디자인세부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9, p.16

22) 디시뉴스, 『무질서 속의 질서, 크리스 조던 작품 ‘눈길’』, 2005-10-31

다. 대나무의 형태가 집적되어 숲의 공간이 보이도록 유도한다. 본인의 예술 작품에서 보이는 반복적 구조는 공간에 대한 경험적 이미지를 재구조화시키고, 일상적 삶의 풍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감정을 보다 명확하게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작품 4】 ‘Beepartment2’에서는 육각 구조의 선인장 형태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선인장 숲을 보이도록 한다. 선인장과 아파트가 결합된 이중적 형태는 반복되어 아파트단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는 주장과 같이 자연과 동식물, 현대인 모두 공동체적인 일상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함에 목표로 형태를 결합하여 자연의 모습을 재해석했다. 과거 예술가들이 그리던 풍경에 대한 시선으로 오늘날 자연스러운 도시풍경을 그리는 자신 또한 현대인으로서 일상적 반복으로 이루어진 삶의 속성을 투과한 주관적 공간을 구성하는 예술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작품분석



【작품 1】 Beepartment1

【작품 1】 Beepartment 1

연도: 2020

크기: 가변크기

재료: 필라멘트(P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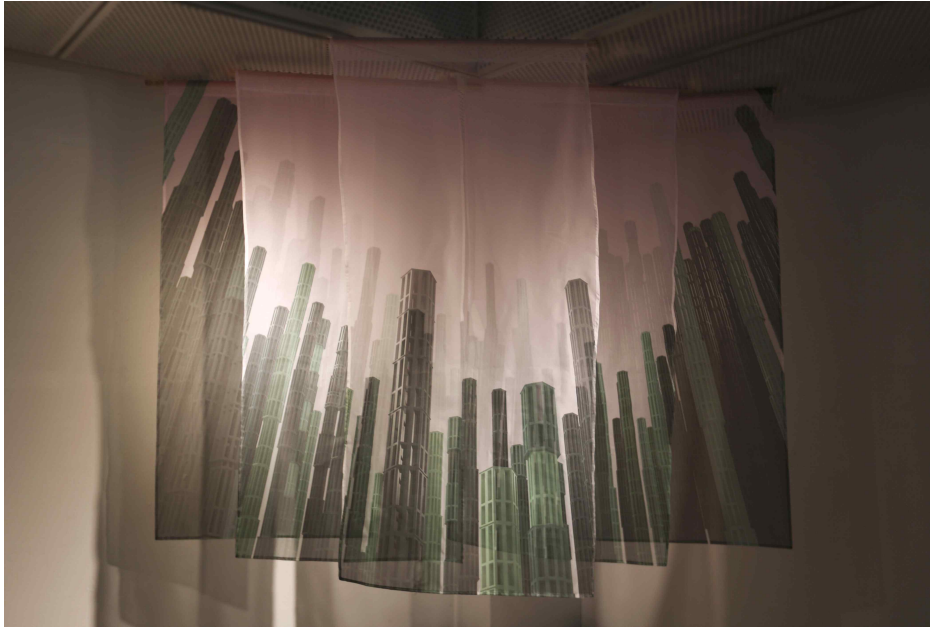
제작방법

1. 3D프로그램로 육각면체이며 측면은 사각형의 창을 내고, 높이와 폭, 층의 개수가 서로 다른 5가지의 아파트 형태를 만든다.
2. 다섯 가지의 형태를 3D프린터기계로 각각 높이 5~20cm, 총 30개 인쇄한다.
3. 인쇄된 형태들을 가지고 일정한 순번 없이 공간의 천장높이에 맞춰 조절하여 한 줄로 쌓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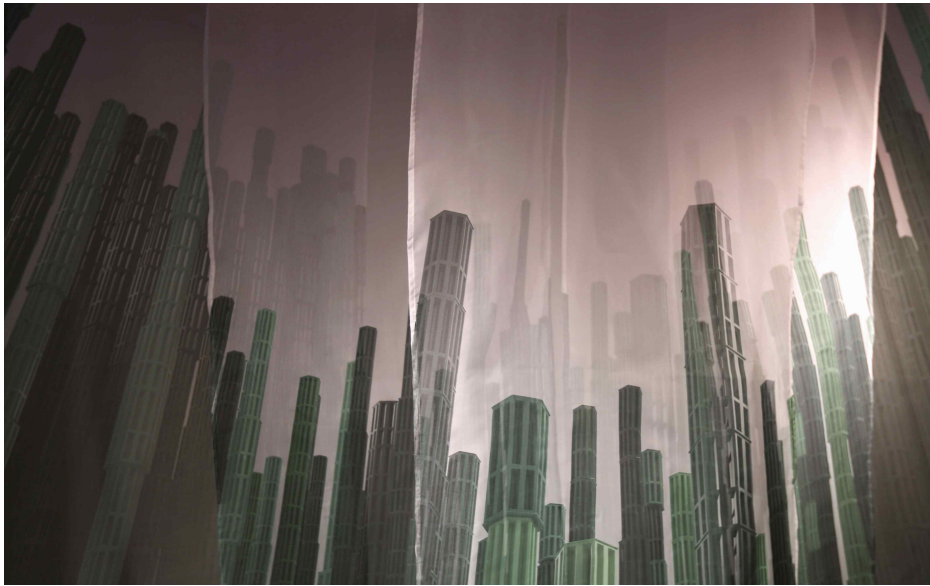
작품설명

‘주거계획도시’의 표준화되어 나열, 반복되는 아파트의 자연스러운 환경을 표현한다. 본인은 계획도시내 단지를 이룬 시각적으로 육각형 구조의 아파트인 한 칸을 개인공간이자 집으로 생활하고 성장했다. 아파트의 주관적 시선은 육각형임이 당연했다. 도시인으로 일상을 말할 때 현대사회와 집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모습을 일상으로 표현한다. 삶을 지속하기 위해 서로를 찾으며 사회활동을 마친 후 안정적인 집으로 회귀하고 내일을 기다리고, 또다시 일상을 보내며 돌아온다. 마치 꿀을 모으고 칸칸이 저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식물과 벌집을 끊임없이 찾는 벌의 속성과 동일함을 느꼈다. 본인

을 별로 칭하고 이를 작품에서 표현하기 위한 한 가지 구조적 유닛으로 아파트로 설정한다. 별집의 육각형이 반복되는 형태, 아파트의 창문이 반복되는 형태를 결합한다. 사회에서 귀가하는 길에서 바라본 수직적 구조물에서 나의 집, 즉 나의 공간을 찾는 방법은 외관에서 쌓여진 창문을 세며 공간을 찾아 바라보며 인식하게 된다. 이 행동에 지각한 순간 반복되는 창문을 별집에 비유하게 되었다. 인공적인 자연, 천연의 자연이 혼성된 수십 개의 유닛들이 쌓인 모습은 다시 하나가 된다. 건물임과 동시에 자연물인 대나무 한그루를 이룬다. 하나의 대나무이자 건물로 나타난 형태가 천장높이만큼 세워짐으로서 올려본다. 수직적 구조물보다 작아진 동시대의 관람자는 작품을 바라보며 시각적으로 거대한 식물을 오가는 별과 같이 느낀다. 본인의 도시풍경을 현대인의 자연풍경으로 접근하기 위해 조형화한 주관적 형태를 부각하고자 한다.



설치사진



【작품 2】 죽림(竹林) 1

【작품 2】 죽림(竹林) 1

연도: 2020

크기: 가변크기, 각 150x70cm(5개)

재료: 시폰 천에 인쇄

제작방법

1. 【작품 1】의 설치된 하나의 대나무형태를 3D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폭과 길이를 조절하여 수십 개를 변형한다. 형태들은 녹색을 유지하지만 밝은 톤, 어두운 톤으로 조절하여 차이를 둔다.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 배치하여 나열한다.
2. 3D프로그램에서 배치한 모습을 사진으로 렌더링하여 이미지화 한다.
3. 이미지를 각 150x70cm의 인쇄 사이즈로 5조각 나눈다.
4. 투과율이 적당히 높은 시폰 천에 인쇄한다.
5. 인쇄된 시폰 천을 가로로 반씩 겹치고, 1점투시도법과 같이 사자 형태로, 첫 번째 줄에 한 장의 시폰 천을 가운데 배치한다. 두 번째 줄에 두 장의 천을 첫 번째 줄에 배열된 천과 왼쪽과 오른쪽 반씩 겹쳐 펼쳐지도록 배치한다.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두 번째 천과 반씩 겹쳐서 펼쳐보이도록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한다. 세 줄의 폭은 공간에 맞게 배치하지만, 겹쳐있는 끝의 천의 이미지가 첫 줄에서도 보이는 만큼만 간격을 두어 배치한다.

작품설명

【Beepartment 1】와 같이, 공동체로서의 자연의 벌집형태와 결합된 육각

형 아파트가 대나무로 치환되어 풍경의 유닛으로 보인다. 반복적으로 대나무들이 모인 모습인 죽림(竹林)은 빼곡하게 늘어선 아파트 숲으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대인의 자연풍경을 과거 동양적 자연관의 시선으로 바라본 주관적 공간인 ‘산수화’의 첩첩산중을 묘사한 이미지를 담아 재구성한다. 나무와 같은 수직적 자연물의 형태가 모여 하나의 산으로 표현됨과 같이 수많은 아파트들이 늘어서서 반복되어 그려진 하나의 일상적 도시풍경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한다. 수직적인 대나무이자 아파트 형태는 집적되어 겹치고, 반복되어 풍경으로 나열된 첩첩산중의 이미지를 그린다.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본인의 실제의 공간을 넘어서, 스스로 인식한 내적형상과 함께 공동체 삶에 한 부분으로 나타난 도시풍경의 커다란 공간을 이미지화 한다. 경험으로서의 도시풍경은 새로운 자연풍경이 된다.



【작품 3】 죽림(竹林) 2

【작품 3】 죽림(竹林) 2

연도: 2020

크기: 25x60x18cm

재료: 적송, 필라멘트(PLA), 인조잔디, 락카 도색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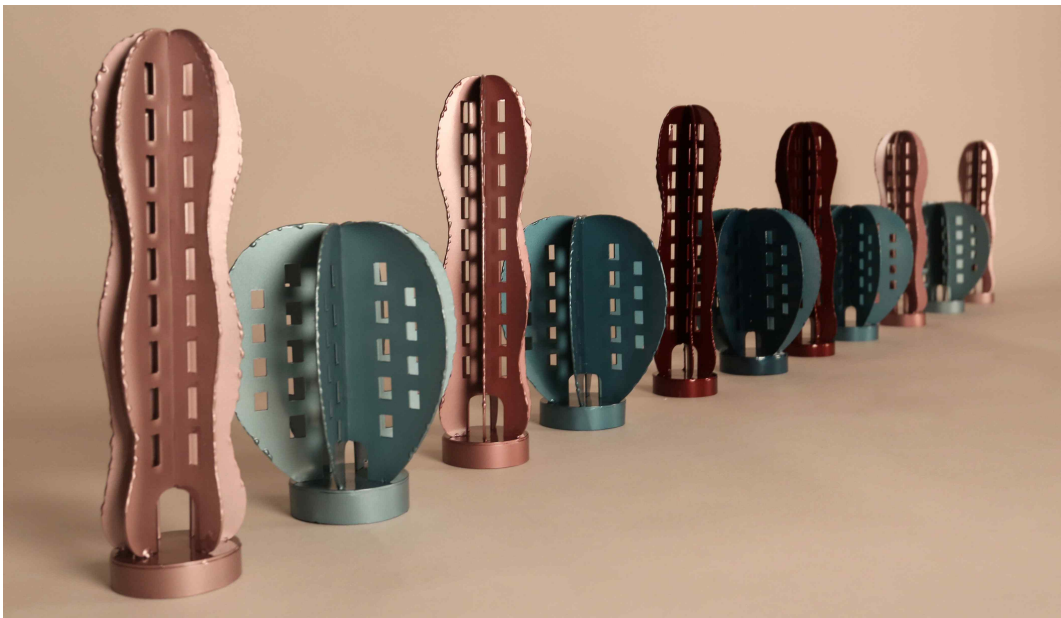
1. 3D프로그램로 【작품 1】의 설치된 형태와 같이, 수직으로 올라가며 로마다 폭이 같은 직선의 대나무와, 수직으로 한 마디씩 폭이 서로 다르게 교차되는 2가지의 대나무 형태를 만든다.
2. 2가지 대나무 형태를 3D프린터기계로 PLA 재료를 사용하여 각각 높이를 21.4cm로 맞춰 총 40개 인쇄한다.
3. 인쇄된 하나의 대나무 형상에 락카 도료로 연한 녹색, 녹색, 진녹색 3가지 색으로 아래에서 위의 방향으로 연해지는 그라데이션이 나타나 보이게 도색한다.
4. 투명 락카 도료로 코팅한다.
5. 적송원목을 이용해 25x60x18cm의 직사각형의 틀을 제작한다.
6. 적송 틀 안쪽의 바닥부분에 인조잔디를 붙인다.
7. 틀 안쪽에 대나무 형태들을 세로방향으로 빼곡한 간격으로 붙인다.

작품설명

【죽림(竹林) 1】에서 보이는 대나무 숲이자 아파트의 숲의 이미지를 입체로 표현한다. 끝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넓은 숲의 한 부분으로 드러난다.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인공적이다. 이는 도시환경에 익숙한 본인의 영향인데, 대나무의 형태를 이루는 재료인 PLA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작되는 친환경 수지이다. 3D프로그램과 프린터를 통한 인공적인 가공기법으로 완성되지만, 이 것 또한 자연을 시작으로 한다. 현대인에게 자연에 대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작용을 하는 소재로 의미가 내포되어있음에 매력이 있다.

인간의 시점에서 작은 대나무의 형상은 약간은 빼곡하고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다. 대나무 하나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반복적 구조가 모여 하나를 이루고, 다시 반복을 통해 숲의 한 덩어리로 보인다. 한 조각의 소자연도 공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복적 구조를 통해 강조한다. 강조를 통해 풍경의 요소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도 자연의 원칙에 놓여있음을 지각하게 된다. 작은 자연을 시각화함을 목표로 표현하였다. 또한 대나무 숲의 형태로 보이거나 드러난 창문의 형태가 빼곡하게 늘어난 아파트 숲과 같은 단지의 모습으로도 보인다. 본인의 내적 형상이 나타난 이중적인 시각의 새롭게 형성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 Beepartment 2

【작품 4】 Beepartment 2

연도: 2020

크기: 각 28x8x8cm(6개), 각 18x15x15cm(5개)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도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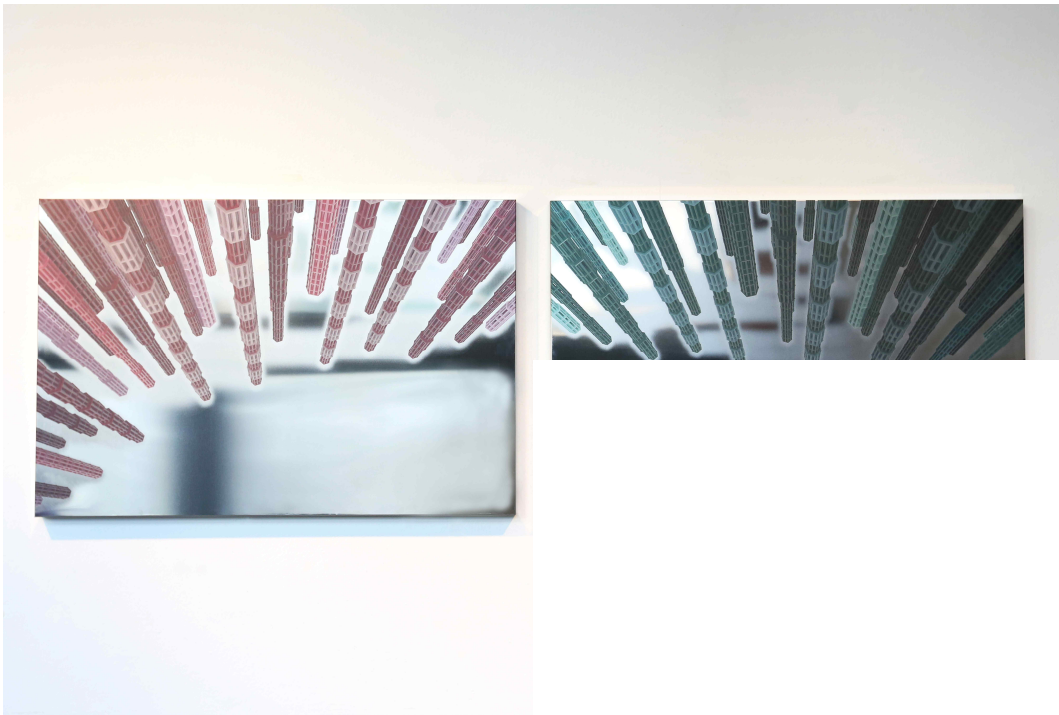
제작방법

1. 제작하려는 2가지의 세로가 길고 폭이 좁은 선인장 형태, 폭과 높이가 비슷하여 동그란 선인장 형태의 일러스트 파일은 만든다.
2. 스테인레스 스틸을 레이저 기계로 선인장 형태의 각각의 면을 자른다.
3. 잘린 각각의 면을 총 11개, 육면체의 선인장 형태로 용접한다. 세로로 긴 형태의 선인장은 총 6개이며, 동그란 선인장은 5개가 완성된다.
4. 용접한 형태에 우레탄 페인트로 2개의 색을 사용한다. 긴 선인장은 각 2개씩 같은 진하고 연한 농도가 다른 색으로, 동그란 선인장은 각 2개는 연하고 보통의 색이며, 1개는 진한 색으로 도색한다.
5.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배치한다.

작품설명

【Beepartment 1】과 같이 반복적인 구조를 적용된 시각으로 작품을 본다. 【Beepartment 2】의 풍경 표현 유닛은 ‘귀면각’이라 칭하는 자연 속 선인장 그리고 육각의 형태가 보인다. 강한 생명력을 대표하는 선인장이라는 식물, 그를 오가는 동물의 벌레 모습에서 자연공동체의 풍경을 비추어 본다. 도시 속에서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기찬 생명력으로 움직

인다. 본인의 경험적 주거형태인 벽과 벽이 나누어진 아파트 속의 삶, 그리고 육각형의 형태, 선인장의 면끼리 나누어져 있는 형상이 자연 안에서 서로 같음을 느낀다. 수직적 구조의 선인장에 창을 내고 아파트로서 형태를 강조 시킨다. 공간의 의미를 가진 결합된 하나의 선인장을 한 건물로 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치한다.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표준화된 형태에 숫자를 부여하고 무미건조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진 아파트단지의 풍경을 의미한다. ‘주거계획도시’의 자연 속에서 획일화되어 세워진 아파트단지의 규칙적인 반복을 표현한다. 선인장이 모인 모습이 아파트 숲이자 관조적인 시점의 풍경이 보이며 그 안에서 순응하고 일상을 보내는 본인의 태도를 반영한다.



【작품 5】 죽림(竹林) 3

【작품 5】 죽림(竹林) 3

연도: 2020

크기: 각 40x60cm(2개)

재료: 스테인레스 스틸, UV인쇄

제작방법

1. 【작품 2】와 같은 형태인 3D프로그램로 아파트 형태와 결합하여 변형된 대나무형태를 만들고, 동그랗게 나열하여 중심에는 배치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을 유지하여 나열한다.
2. 3D프로그램에서 배치한 모습을 사진으로 렌더링하여 이미지화 한다.
3. 이미지를 각 40x60cm의 인쇄 사이즈로 2조각을 나눈다.
4. 스테인레스 스틸 판을 액자형으로 만들고, 거울처럼 비치도록 광을 낸다.
5. 스테인레스 스틸 판에 UV인쇄를 한다.
6. 2조각에 비어있는 공간끼리 맞닿도록 좌우로 배치한다.

작품설명

【죽림(竹林) 1】와 같이, 보이는 죽림이자 아파트의 숲의 주관적 공간을 구성한다. 중심을 여백으로 남기고 위와 양옆에서 대나무의 이미지가 둘러친 공간을 만든다. 본인이 일상에서 집으로 되돌아오며 겪은 경험에서 구현됐다. 사회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힘들었던 순간 무심코 주거 공간인 아파트 단지 속을 걸어 들어가며 겪은 기억이다. 주위가 높게 솟아있는 건물들이 하늘로 이어지고 거대한 숲 속에 있는 듯, 수직적인 구조에 의해 시각적으

로 작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느꼈다. 때문에 본인이 서있는 곳이 자연 속의 어디인가에 대한 상상을 했다. 그 당시 서있는 곳에서 보는 풍경이 현실에 서는 도시의 모습이지만 순간적으로 자연의 숲으로 공간화 되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표현한다. 스테인레스 스틸을 재료로 거울과 같이 비치게 하고, 여백에 비침으로 기억의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여백에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중심에서 양쪽 위로 뻗어가는 대나무의 연결선은 숲의 한가운데에서 바라본 수직적 풍경의 감정을 연상하도록 열어놓는다. 주거도시에서 사는 구성원으로서 일상적 이미지를 포착하고 경험적 이미지가 공유되도록 끌어들인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좁아진 자연에 대한 범위를 지각해보았다. 표준화된 이미지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직적 도시의 모습에 현대인으로서 표현하는 풍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작품의 이미지와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연물과 인공물 그리고 일상 속 주관적 경험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였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적 요소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여기서의 영향은 개인마다 경험에 따른 기억으로 누적되어 본인의 방식으로 남게 되어 기억은 이미지를 동반하고, 이미지는 미적경험으로서 조형적 개념으로 형태로 나타나 표현됨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현대인의 자연스러운 일상 환경에 대한 경험적 시각을 담은 형태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공간을 표현한다. 표준화 되어진 인공물이 반복되는 삶에 익숙해진 시선은 주관적 경험이지만 동시대에 도시인인 관람자 시선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작품은 수직, 반복적인 구조를 통해 경험적 이미지인 인공물과 상관적 이미지의 자연물을 결합하여 표현했다. 본인은 ‘아파트 숲’이라 불리는 도시 안에서의 환경을 ‘자연의 숲’에서의 시각적 상관물을 통해 새로운 풍경을 그렸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지는 예술적 풍경을 현대도시사회를 살아가는 본인의 시선으로서 인식한 내적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과정이 되었다. 관람자에게 현대인으로서 익숙한 일상적 시선에서 예술가의 풍경으로 작품을 인식하게 하고자 함이다. 끝으로 수직반복적 구조를 표현한 작가 최정화와, 반복적 구조를 표현하는 크리스 조던의 작품을 통해 본인 작품의 분석과 동시에 향후 작품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로서 본인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반영된 예술적 풍경에 대해 고찰하였

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작업에 연결지어 분석하였다. 동시대에서 자연에 대한 관점을 넓히고, 앞으로 작품에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예술가적 태도를 취할지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79
-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 John Berger, 『시각의 의미』, 이용은 역, 동문선, 2005
- 존 듀이, 『경험으로서 예술1』, 박철홍 역, 나남, 2016
- 크로포트킨, 『만물은 서로 돕는다 : 크로포트킨이 밝힌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요인』, 김훈 역, 여름언덕, 2015
- 정병석, 『인간과 자연』, 서광사 1995
- 바바라 슈티프, 『훈데르트 바서』, 김정연 옮김, 현암사 2008
- 서성록, 『동서양 미술의 지평』, 재원 1999
-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아카넷 2005
- 디시뉴스, 『무질서 속의 질서, 크리스 조던 작품 ‘눈길’』, 2005

《참고논문》

- 이길임, 「르 코르뷔지에의 집합주택실험에 나타난 도시·건축적 함의(含意) : 임피블르-빌라로부터 유니테 다비타시옹까지」, 경성대학교 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공학박사학위 논문, 2018
- 기옥란, 「현대회화에서의 도시공간의 미적 이미지 : 도시와 자연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연희, 「한국 팝아트의 변용과 문화 정체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학선, 「도시인의 일상에 관한 조형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산업공예전공 직물디자인세부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9

ABSTRACT

A Study of City Landscape Expressed with Images of Nature

- Focusing on the researcher' s work -

Lee, Chae Won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 s University

City is the most familiar scenery for modern people. Within the boundaries of ordinary lives, image of space is exposed following the waypoints where my vision and senses are laid. Urban lifestyle with highly dense population is complex and diverse. Among them, I depicted the common form of housing to endeavor the naturally looming inner nature of human. I would like to retrospectively question the meaning of nature confined in today's environment to modern people like myself, whom are relentlessly living the era where boundari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re essentially futile. The viewpoints from urban daily life and repetitive attributes of life are explicated as a frame of reference.

As conformity to standardized communal lives overwhelm the individual and individuality, humans tend to refer themselves as an entity of nature that forms the world, I analyze the artificial architectures through the

spectacles of art, which naturally emerged through social transformation of natural objects and humans. Contributing to the longing interest on nature throughout the art history,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scenery, to fathom the involuntarily biased view risen from the circumscribed environments of artists themselves. Whilst untangling the boundaries of nature and human in the eyes of modern people, one shall broaden the perception through art within the confines of city nature and therein possess the ever advancing modern attitude. My art as a utensil, I wish to adduce the natural attitude inherited from richer life.

This paper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focusing on the works submitted in the 2020 Master's request exhibition.

Chapter 1, introduction, describes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f my work.

Chapter 2, body, first part elaborates the process of apartmentalized lifestyle—a housing type risen through the modern society along with urbanization—becoming a norm for contemporaries, and analysis was conducted by presenting the theoretical aspect of nature and the view of scenery under a filter of art.

Second part gives account on method of artwork expression, in which structurally combines and sculpts the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such as bamboos, cacti, and honeycombs, based on housing forms within the living environment.

Final part, describes each of my 5 artworks in terms of its production method and its description.

Chapter 3, Conclusion reviews the content of the body and proposes the direction of future work.